



ESCO 청계산 등반대회 개최

지난 4월 17일 ESCO협회는 회원사 임직원, 협회 직원, 출입기자 등 49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계산 등반대회를 가졌다. 등반대회는 ESCO사업에 바쁜 와중에 자칫 잃기 쉬운 건강도 다지고 친목도 도모한다는 취지로 매년 협회 창립기념일을 전후로 개최되고 있다.

최석곤 회장은 "ESCO사업이 확대되는 만큼 갈수록 참여하는 회원사가 늘어나고 있다"며 "등반대회의 취지를 잘 살려 더욱 회원사들의 ESCO사업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등반대회가 끝난 후 가진 회식자리에서는 삼성에버랜드, 한국하니웰, 화인테크, 삼환이엔테크, 중앙전자통신 등 회원사 협찬의 경품추첨의 시간도 가졌다.



단체사진은 필수죠, 자 지 찍습니다!
눈 감으신분 눈크~게뜨세요
김치도 하셔야죠~

김치

누꼬??

이누꼬? 빨리 나와 봐라!
ESCO협회의 경품 추첨은 팽이 없다 아이가!
최석곤 회장의 한 말씀 중계입니다.

@^^@

연달아 한국하니웰이 당첨되자
두 분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0^b

연달아 한국하니웰이 당첨되자
쑥스러워 하고 있는 김석철 감사님.

^///^ ;

즐거운 경품 추첨시간~~행복하시죠?
꼭 집에 갔다 드리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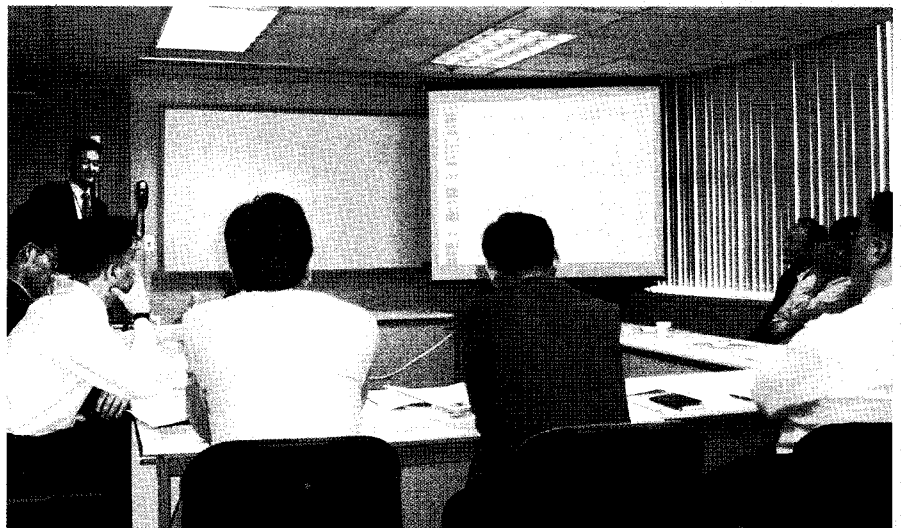
청정개발체제(CDM)사업 ESCO참여를 위한 설명회 개최

지난 5월 14일 서울 중구 소재 삼성연수원에서는 협회 주관으로 ESCO의 CDM사업 참여를 위한 설명회가 있었다.

이 날 설명회에는 삼성에버랜드, SK, 성림산업개발, 삼환이엔테크, 한국하니웰 등이 참석하여 에너지관리공단의 기후변화협약대책단 박영구 팀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는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합의된 것으로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사업 분야는 13개 분야로 에너지산업(재생에너지, 비재생에너지), 에너지공급, 배전망개선, 에너지수요, 제조업, 화학산업, 건축, 수송, 광업, 금속제조, 휘발성 연료누출, HFC, PFC, SF6 배출, 유기용제 사용, 폐기물 처리, 산림 및 토지이용 등이며 우리나라가 CDM총괄기구인 집행위원회(EB)에 인증을 요청한 분야는 에너지산업, 제조업, 화학산업 등 3개 분야.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울산 화학의 HFC사업이 CDM사업으로 UN에 등록중이다. CDM 국가사무국은 국무조정실 내에 설치될 예정이다. 또 에너지관리공단은 현재 UN CDM 집행위원회로부터 CDM운영기구 지정을 받기 위한 현장 평가를 받고 있다.

대책단의 박영구 팀장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에 근거하여 ESCO가 온실가스

배출감축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라며 “ESCO협회로부터 추천받은 ESCO업체가 발굴한 CDM가능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ESCO협회(02-728-4401)나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변화협약대책단(031-260-4548)로 하면 된다.